

노사는 행복공존 위한 관계, 평등관 바탕 불교는 고용을 쌍무적 인연관계로 이해... “기업은 소불국토”

한 개인은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이다. 그 노동이 유형 무형의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생산이라 부른다.

불교의 입장에서 노동이란, 불교의 실천행 그 자체이다. 불교의 노동관은 중국의 선승인 백장(百丈懷海) 화상의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고 하는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슬로건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말과 상통할 것 같지만, 정신은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의 슬로건이 타율적인데 비해서 백장 스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자율적이다. 불교의 노동관에 비해 구미사회의 노동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동시간은 여가를 포기한데 따른 '고통'이다.

<성서>에 의하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브와 함께 에덴동산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꼬임에 빠져 신이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었던 선악과(善惡果)인 지혜의 나무열매를 따먹어 버렸다. 그 때문에 신이 노한 나머지 그 벌로서 인간을 에덴의 낙원으로부터 추방함과 동시에 노동하며 살 것을 명했던 것이다.

결국 구미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신으로부터 내린 징벌이라고 여겨진 것이다. 잘 사는 인생은 노동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가 속에서만이 발견되는 것이다. 흔히 미국인들은 은퇴 하면 플로리다 같은 곳에 별장을 세워 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래서 정년은 젊을 수록 좋고, 은퇴는 노동자가 가장 대망하는 관문인 것이다. 노동은 고역이므로 어서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미식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불교경제학의 노동조합에 관해 생각해 보자. 현대 경제에서 노동조합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노동쟁의(strike)라고 하는 인상만을 강하게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실제로 국내외의 노동운동의 역사에는 노사간에 많은 유혈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불교적 입장에서 직장과 노동조합은 인연으로 맺어진 곳으로, 노사 모두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한 조직이다.

불교의 기본에는 인간 평등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직장은 어디까지나 쌍무적 노사관계로서 고용관계이며, 일방적인 봉사나 강제는 부정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초기불교시대에도 이미 경제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불교경전에서 고용관계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자로서의 '노동자'의 존재가 있는데, 먼저 '고용주의 수칙'을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 (1) 그 힘에 걸맞게 일을 시킨다.
- (2) 보다 많은 급여를 준다.
- (3) 병이 났을 때는 친절하게 간호한다.
- (4) 진기한 것을 나누어 준다.
- (5) 때때로 휴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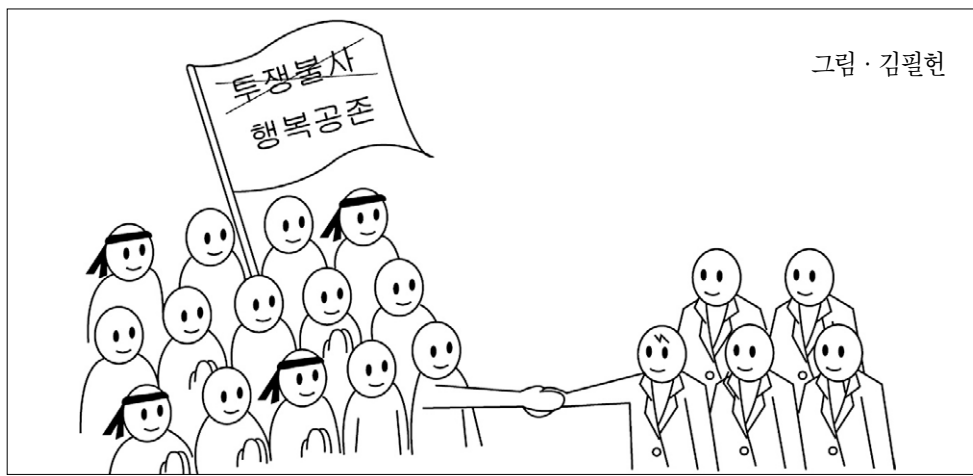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당시의 계급사회에서 이와 같이 '주종(主從)'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쌍무적인 관계로서 일방적인 봉사나 강제는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노사관계가 서구의 초기자본주의시대의 노사관계보다도 훨씬 인간적인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고용관계를 어느 한쪽만이 아닌 쌍무적 인연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계층적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고대 인도에 있어서 상층신분인 고용주에게도 이와 같이 중요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피(고)용자의 수칙'은 다음과 같다.

- (1) 아침에 주인 보다 일찍 일어난다.

- (2) 밤에는 주인 보다 늦게 잔다.
- (3) 어떤 일이라도 정직하게 수행한다.
- (4) 맡은 일을 잘 숙련한다.
- (5) 주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석가모니부처님 자신은 가뭄 때에 물싸움을 하는 농민들 사이에 들어가 분쟁을 조정하면서, 어떠한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시는 바 있다.

더욱이 불교 교단내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7종의 결정법'(七處淨法)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석존의 가르침은 불교적 조합운동의 기초사상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조합원의 마음 밑바탕에

는,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 소불국토를 구축하고자 하는 원(願)이 반드시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경제학의 노동조합과 공산(사회)주의 노동운동과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공산주의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불교도는 합법과 화(和)의 정신을 언제나 중심에 두고 노동운동의 수단이 경제적인 복지에 있는가의 여부를 신중히 가린다.

공산(사회)주의적 조합운동은 평등사회건설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이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도자는 어느생각 조합원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게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엘리트 간부의 타락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계적인 '결과의 평등'은 공평과 상반된다. 공평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 공평 없이 자유는 없다. 프랑스 혁명당시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양립되지 않는 모순개념으로 나타났지만, 공산주의 노동운동에는 이 모순의 인식이 없다.

무엇 보다도 공산주의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나 시장경제적 경영자는 적(敵)이지만, 불교에 있어서는 대등한 공생관계이다. 전 종업원의 행복(경제적 복지)을 증진하기 위한 경쟁상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바라보는 노동과 노동조합의 의미는 서구나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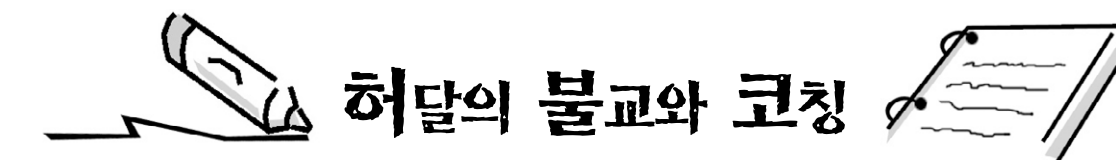
■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31 신뢰성

고교 동창끼리 모여 만든 불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필자가 카페지기를 맡고 있다. 회원 수 서른도 안 되는 작은 카페이다. 한동안은 무비 스님이 쉽게 풀어준 해설서를 저본 삼아 <신심경(信心鏡)>을 매일 한 구절씩 '한 줄 메모장'에 연재했는데, 호응이 좋았을 뿐 아니라, 옮겨 적는 내 공부도 좋았었다. 요즘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된 '불교와 코칭' 이 글들을 퍼다 올렸더니, 꾸준히 읽어주는 비회원 방문객도 더러 오시기에, 방문객 서비스 삼아 부처님 리더십과 관련된 '한 줄 메모장' 연재를 다시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종교학과 프란츠 메트칼프 교수와 '인도주의 경영'의 전도사라는 캘러 헤틸리 두 사람이 공저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책자를 SPR경영연구소에서 번역하였는데, 거기 실린 이야기들을 1회 300자 이내로 옮겨 실는 작업이다. 며칠 전에는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별로 즐거운 예는 아니지만 참가자 각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아주 치명적인 병인데 그냥 놓아두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병은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아주 까다롭고



정교한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 두 사람의 의사가 있다. 첫 번째 의사는 비유하자면 천사와 같은 분이다.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 이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환자의 병을 치료해 준다. 많은 임상경험을 가졌으니 그런 점에서 또한 한 안심이 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의 연세가 높다는 것이다. 나이가 칠십이 가까워 과연 이 세밀한 수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뜻이다. 또 이 수술은 최신 장비 사용해야 성공률이 높는데, 이분은 요즘의 첨단 장비를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 한 사람의 의사는 젊고 야심찬 의사이다. 최근 외국에서 귀국한 사십 대 중반의 의사인데, 최신 장비의 사용에도 익숙하고, 이런 류의 정교한 수술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

서는 최적적 능력 보유자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의사사고(醫事事故)와 관련된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형사소추(訴追)를 피해 귀국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그 사고의 내용이 꺼릴지라도는 것이다. 내용인즉 이 의사가 수술하던 환자의 멀쩡한 다른 장기를 잘라내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이식

(移植)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주위에 수소문해 보니 이 의사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눈 하나 깜짝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자, 이제 워크숍 참가자가 선택할 차례이다. 각자의 생사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의사에게 자신의 수술을 맡기겠는가? 지난 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한 삼십 명쯤 되는 수강생들에

성품 · 역량 갖춰져야 신뢰 얻을 수 있어

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첫 번째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겨우 두 명, 두 번째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대여섯 명쯤 되었다. 그래서 손을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나머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느냐고... 모두 한바탕 웃었는데, 그러더니 "교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는 역공(逆攻)이 들어왔다. 시침 뻑 뻑 대답했다. "다른 의사를 찾아야지요." 그래서 또 웃음.

그런데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하나 밖에 없는 내 목숨 아닌가? 신뢰할 수 없는 의사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 위의 두 사람의 의사를 우리는 둘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뢰성을 갖춘 사람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성이란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다 구비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좋은 성품(性稟, Character)과 뛰어난 역량(力量, Competence)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가져서는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위의 예에서 보았다.

좋은 성품이란 성실성(Integrity), 성숙성(Maturity), 그리고 '승-승(Win-Win)'을 추구할 수 있는 심리적 풍요로움(Abundance Mentality) 같은 인성을 말하며, 역량이란 지식/기술(Knowledge/Technology), 개념화 능력(Conception), 그리고 이로부터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Creativity)을 창출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된다.

신뢰성은 리더의 기본적 자질이며, 성공적인 코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코치의 덕목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21세기 디지털 사찰 대 광사

www.daegwangsa.com

“구세주 미륵불(대의왕)님은 인간시조 할아버지 신(神)이십니다.”

경인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행운을 선사합니다.

대광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종교의학 편에서이론을 배우고 사이버 법당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21세기 후천세계 구세주 미륵불(대의왕)님의 신통도력이 일심으로 기도하면 자동 인간화 시켜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이버 법당 기도를 하여 법당에서와 똑같은 신통도력을 받아 쓸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전국 각지에서 이미 실험을 마치고 대광사 기존 신도들은 유용하게 실용화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학으로 가장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은 오래된 두통, 편두통, 가벼운 신경성 질환, 위장병, 신경성 고혈압, 견통, 요통, 생리불순, 생리통, 정상불임부부임신 출산입니다.

전파(電波)로 신통도력(神通道力)을 전달(傳達)하는 방법(方法) 세상(世上)에서 처음일 것 !! 신통도력(神通道力)은 묘법화경(妙法華經)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에 있습니다.

이 도법 천도선법(天道仙法)을 익혀서 수도하면 11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도는 기도의 생활화 입니다.

※가르치고 배우서 된다면 공자가 다 했을 것입니다. 컴퓨터가 없으신 분은 직접 찾아오십시오.

이 광고는 21년간 실용화 된 경험을 불자들에게 알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Dae Gwangsa is make of Automatic action a human a temple.

재가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